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성찬식 :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2/24)	다음 주(3/3)	3/10
기 도	주일오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오숙현 성도	이빛나 성도	하유미 성도
성경 봉독		이강진 서리집사	이윤경 성도	편재천 성도
식사 준비		이강진 순	장윤경	이윤경 순
정리		오숙현 순	김윤기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8호 2019.2.24.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49장, 찬송가 528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07편 1-22절	이	강진	서리집사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33:1-6 [보 배] < 성 찬 식 >	김	윤	기 목사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88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헌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박	철호	서리집사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오숙현 성도
 본 문: 요 20:30-31
 설 교: 오직 성경(5)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오리문답: 하이델베르크오리문답 8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삼상 19:18-24
 설 교: 더 적극적으로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신앙도서강독	주일 오후모임 후

□ 하이델베르크오리문답 8주일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말씀 요약: 사 33:1-6, 보배

1. 위기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앗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왕하 18:13-16). 유다는 패배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는 계획은 실패합니다.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싹 다 끊어서 앗수르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다시 유다를 위협합니다(1절).

2. 기도

히스기야는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2절).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눈앞에 적이 진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3-5절). 앗수르를 치시고 흠으십니다.

히스기야는 뜨거운 열심으로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세가 기울고 막막한 현실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의 압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현실에 뒤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낭떠러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3. 보배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오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6절).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심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으며, 그렇게 하길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합니다.

4. 마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신이었습니다(고후 5:20).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고후 5:21). 그 안에서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모든 모진 삶의 여정을 다 견뎌냅니다(고후 6:3-10).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넓어진 마음으로, 교회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고후 6:11-13).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